

새내기들을 위한 제언

이번 <열린지성>에서는 지난 2월 졸업을 한 선배들이 새로 입학한 후배들에게 남기는 따뜻한 조언을 담아보았습니다

■ 김상현 (기계항공공학부 00학번)



2000년의, 그리고 2007년의 관악

벌써 7년이 지났다. 입학하던 날이 바로 엊그제 같다는 진부한 표현조차도 어울리지 않는 기간. 나의 소속이 서울대학교가 아닌 것을 상상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나는 관악에 익숙해져 버렸다. 하지만 이전 떠날 시간이다.

항상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아쉬움이 남는 것 같다. 막상 대학을 졸업하려니 왜 이리도 해보고 싶은 것이 많아지는지. 동아리 활동을 좀더 열성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도 들고, 전공 과목의 부담에 미뤄두기만 했던 다양한 교양 수업들도 자주 내 눈길을 끈다. 졸업하는 선배들이 했던 말을 졸업을 앞두고서야 이해하게 되는가 보다.

지난 날의 나와 같이 관악산 중턱에 있는 공대 건물에서만 주로 생활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말하고 싶다. 산 아래로 내려와보라고, 그리고 대학이라는 제도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를 느껴보라고. 비록 많은 수업은 아니었지만, 여러 교양 수업들을 들으면서 만났던 다양한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씩 스쳐 지나가는 것이 느껴진다. 나와 다른 교육을 받으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은 나의 영역을 넓혀주는 아주 유쾌한 경험이었다.

대학 교육을 받으며 얻게 되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 필요한 기초적인 교양과 사회 문제들에 대한 인식과 비판, 그리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지시해주는 인생관을 습득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찾지만 하면 그러한 지적 욕구와 갈증을 해소해주는 다양한 수업들이 있다. 관악에 모인 대한민국의 지성들이 이런 혜택을 충분히 누리고, 더 나아가 이 나라를 밝히는 진리의 등불을 높이 들고 나아가기를 기대해본다.



대학은 전문학교가 아니라 지식을 창조하기 위한 곳이다

내가 처음 수강편람을 열어 본 건 대학교 2학년 1학기 수강신청을 할 때였다.

대학교에 입학했지만 전공수업과 졸업을 위해 억지로 들어야 하는 수업들 때문에 내가 수업을 선택할 만한 학점의 여유는 없었고, 그래서 선배들에게, 그리고 동기들에게 수강신청을 맡기고 학교를 다녔었다. 때문에 내가 선택한 전공수업은 열의를 가지고 들었지만 억지로 들을 수밖에 없었던 교양수업에는 흥미를 잃고 거의 참여도 하지 않았었다. 지금까지도 건축학과 학생에게 왜 미적분과 물리, 화학 등을 가르치는지 이해 못하고 있다. 그러다가 2학년이 되자 처음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학점의 여유가 생겼었고, 그래서야 학교에는 무슨 수업이 있나하고 수강편람을 처음 열어 보았다. 수강편람에는 강좌명만으로도 내 흥미를 끌었던 교양수업 및 타과 수업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리고 그때 듣고 싶은 수업들을 다 듣고 졸업하자고 마음먹었다.

비록 학교를 졸업하게 되어 듣고 싶었던 모든 수업들은 다 듣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매 학기 허락하는 학점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들었던 내가 선택한 많은 교양 수업들은 모두 유익한 수업이었다.

나는 대학교라는 곳이 단순히 졸업 후부터 평생 가질 직업에 대한 직능을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취업을 준비하는 곳은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목적이라면 오히려 학원이나 바로 직업전선에 뛰어드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졸업을 앞두고 돌이켜봤을 때 대학교에서 가장 많이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많은 인간관계와 교양수업들을 통해 얻은 지식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선택한 길에 대한 전문 지식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배우나간다고 마음먹고 있다. 이것은 내가 지난 5년 동안 내 전공에 대해 소홀히 했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다. 내가 선택한 길에 대한 전문 지식은 앞으로 더 많이 배울 것이고 대학교에서는 앞으로 배울 더 많은 지식들의 바탕이 될 여러 지식들을 배웠다고 생각한다. 대학교에서 들은 많은 교양 수업들은 내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는 배우기 힘든 많은 지식들을 알려주었고 생각의 폭을 넓게 해 주었다. 그로 인해 내가 선택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많은 일들을 수행할 때 도움이 될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나는 같은 현상을 봤을 때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훨씬 적었을 것이고, 문제를 해결할 때 머리 속의 일정 테두리 안에서만 애쓰면서 그 테두리를 내가 넓힐 수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았을 것이다.

다시 신입생으로 돌아간다면 더욱 열심히 여러 분야의 수업들을 들을 것이다. 배우고 싶은 것들을 배우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재밌는 일이다. 신입생들은 시험과 학점의 압박만을 생각하지 말고 이 수업을 지금 이 기회 아니면 평생 들을 수 없고, 이 수업에서 얻을 수 있었을 지식들을 평생 모르고 살아갈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생각하며 많은 수업들을 열의를 가지고 재밌게 듣고, 많은 지식들을 얻길 바란다.



교양의 재발견

요즘 부쩍 졸업을 앞두고 대학에서 무엇을 했고 얻었을까 종종 뒤돌아보게 된다. 흔히 주변에선 사람, 지식, 경험 정도로 이야기들 하곤 한다. 정형화할 수는 없지만 내가 얻은 것도 이러한 것들의 조합일 것이다.

이 중 전체수업의 절반 가까이 되는 교양수업은 각자의 전공을 불문하고 누구나 겪을 공통분모이다. 그런데 사실 나는 교양수업 수강에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다. 기준이라는 것이 있긴 했지만 어느 학기에는 실용적인 것을 배울 수 있는 수업, 어느 학기에는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는 수업, 다음 학기에는 교수님이 멋있는 수업, 이렇게 자주 바뀌는 기준이었던 것 같다. 되돌아보면 전체수업의 반이나 되는 교양수업을 좀 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수강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예를 들어 전공인 경영학과 관련된 교양수업을 꽤 들었는데 그것보다는 전공과 관련없이 또 다른 관심분야를 개발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든다. 대학에서의 교양이란 해당 분야의 관심을 체계적 지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새로운 관심분야를 발견하기도 어렵고 학문적 관점에서 바라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다양한 지식체계를 접하며 세상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는 일은 졸업 후 각자의 진로에 집중하기 이전에 탐색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소중한 기회를 충분히 누리진 못했다 아쉬움은 있지만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또 다른 출발점에서 이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감당할 수 있을만한 사치를 조금씩 부려볼까 한다.



소통의 장, 교양수업

지난 학기,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에 법구경을 읽는 교양수업을 들었다. 듣는 학생은 단 둘이었다. 나는 청강하는 입장이어서 사실 정식 학생은 한 명인 셈이었다. 다행히 학생이 한 명만 있어도 폐강되지 않는 수업이었다. 정식으로 듣는 그 학생은 경영학과 2학년이었다. 나는 내심 놀랐다. 인문대생도 아닌, 그것도 저학년 측에 드는 학생이 법구경을 읽는다고 하니 말이다. 원전으로 직접 읽고 해석하는 수업이었지만 힘든 내색 없이 거뜰하게 해내는 모습을 보고 인문대생, 그것도 대학원 진학을 앞둔 입장에서 난 다소 부끄러웠다.

수업시간은 평온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서로 번갈아서 가만가만 경의 구절들을 읽고 있는 시간은 각별했다. 어디에도 구애받지 않는 시간이었다. 이를테면 '아무 데에도 쓸데없는 수업'이었기에 더 소중했던 것 같다. 장자에 나오는 無用之用이 그대로 적용되는 순간이었다.

서로 다른 전공자로서 대화를 하기 위한 공통의 기반은 바로 교양수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 학우는 기존에도 동양 고전관련 교양수업을 들었고 소양을 쌓은 듯했다. 그를 볼 때 경영학 전공실력 또한 뛰어나겠다고 생각을 했다. 사실 타전공자와의 대화는 서로가 상대의 지식영역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행선을 그리기 일쑤지만, 서로의 교양에 바탕을 둔 그 학우와의 대화는 즐거웠다. 교양수업은 이렇듯 소립자 같이 분리되어 있는 대학생활에서 서로에 대해 최소한의 이해를 도와주는 강한 끈이 된다.

대학을 떠나 앞으로 모두 각각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마치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는 직선들처럼, 그 거리는 점점 벌어지리라. 하지만 각기 다른 직선들이 때로 교차점에서 만나듯 학생들도 교양수업을 통해 서로 만나고 이해할 수 있는 장이 펼쳐진다고 믿는다.